

〈제 533호〉

## -주간- 광주 경영계

### 광주은행

####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1위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일 오후 2시 광주은행 본점에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매년 3월 발표하는 브랜드 가치 인증 제도로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산업 브랜드에 대해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부문별 1위 브랜드를 발표한다.

광주은행은 이미지와 선호도, 이용가능성 등 로열티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달 3월 21일 발표한 '2019년 제21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 해양에너지

#### ◆ 해양도시가스, '해양에너지' 로 새출발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달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해양에너지'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하고 4월 4일 신규 사명에 대한 변경 등기를 완료했다.

1982년 '해양도시가스'로 시작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1개시 7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호남을 대표하는 에너지회사로 성장하였으며, 제2의 도약을 위해 '해양에너지'로 새롭게 출발했다.

새로운 사명인 '해양에너지'는 회사 전임직원의 공모와 투표를 통해 선정됐으며 광주, 전남 지역을 상징하는 '해양'이라는 역사적 지명과 종합에너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로 '에너지'를 결합해 사용하게 됐다.

또한 해양에너지의 새로운 CI는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해양에너지'의 슬로건 아래 무한한 가치 실현과 지속성장, 자연과 인류의 긴밀한 공존을 표현하고자 뱀비우스 띠를 CI로 형상화했다.

### <1436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4월5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김수영 작가를 초청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주제로 제1436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오토바이 타고 싸움질하던 비행소녀가 ‘꿈쟁이’로 컸다. 검정고시를 거쳐 1999년 실업계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KBS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렸다. 덕분에 2000년 연세대에 입학해 영문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 2005년 무작정 영국으로 떠나 런던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골드만삭스와 로열더치셸에서 일했다. 여행가, 작가, 강연가, 기업인, 콘텐츠 제작자, 작사가, 배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스물다섯 살 때 암을 앓았으나 완치됐고 80개국을 여행했다.

2005년 꿈 목록 73개를 적었는데 1번은 한국을 뜨는 것. 목록은 현재 83개로 늘었다. 그중 68개는 달성했거나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겪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꿈을 나누고 있다. 한국인은 생존력,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든다. 침략을 많이 받고, 위기를 자주 겪어선지 본능적으로 생존의 길을 잘 찾는 것 같다.

“사람의 인생 크기는 꿈의 크기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했다. 나의 꿈 중 하나는 더 많은 사람이 꿈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꿈을 꾸면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갔고 꿈을 하나씩 이뤄갔다. 행복은 꿈꾸는 자의 몫일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은 축복받은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누구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인간의 아주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 1. 노사 동향

#### ■ 국회 환노위는 4. 3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

-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차 표출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정부안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결정체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에서 주휴시간 제외 요구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 3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고용부 장관과의 회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주휴수당 문제는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전달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당일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됐으며, 추후 고용노동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의 종료
  - ※ 3월 임시국회는 4. 5 본회의를 마치고 종료

#### ■ 고용부는 사내하청 사용사업장 근로감독과 근로감독 강화 내용 직제개편 추진

- 고용부는 4. 10 ~ 30까지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100개소)·대형사업장(100인 이상 사업장 300개소)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이행실태 점검 예정
  - 점검반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되며, 금번 점검에서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확인 방침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고용부는 금년 10월에도 사내하청 다수사용 공공기관 현업사업장 및 공공발주공사(100개소), 대형사업장(100인 이상 사업장 300개소) 등 400개소에 대해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실시 방침

○ 한편, 고용부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차기 「국무회의」4. 9)에서 의결 추진(「국무회의」 통과 시 4. 16경 직제개편 시행 예정)

-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기획과(근로감독 정책·계획 수립, 근로감독총괄업무)와 임금근로시간과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정책수립,제도개선 등)로 구성

※ 다만 근로감독정책단은 2021. 4. 8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 판단 방침

#### ■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저지를 요구하며 4. 1 ~ 3 까지 국회 앞에서 집회 및 시위 진행

○ 4. 2 조합원 일부가 국회본관과 의원회관에 무단 진입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4. 3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는등 불법행위 발생

※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은 4. 2 13명, 4. 3 25명으로 집계됐으며, 연행된 조합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당일 석방

○ 4. 3 개최가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국회앞 집회 중단

-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불발은 민주노총 투쟁의 결과이자 조합원의 승리”라고 밝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입장 발표

※ 당초 민주노총 대(對)국회 투쟁은 4. 5까지 예정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 참고 1 ] 민주노총 대(對)국회 투쟁 경과

날 짜	주요 내용
4. 1 ~ 2	▲ 1차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저지 1박2일 상경투쟁 -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4. 1, 12:00) - 결의대회(4. 1, 14:00), 100여명 참석, 이후 철야 농성 - 결의대회(4. 2, 15:00), 100여명 참석 ※ 조합원 일부 국회본관, 의원회관 무단 진입,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지역구사무실 점거(4. 2)
4. 3	▲ 2차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저지 총력 상경투쟁 - 결의대회(14:00), 500여명 참석 ※ 김명환 위원장 등 일부 조합원 국회 진입 시도

#### ■ 민주노총은 4. 4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019년 사업계획 확정

- ※ 일시, 장소 : 4. 4(목) 14:30 ~ 15:50, 일산 킨텍스 제1관 그랜드볼룸
- ※ 참석자 : 재적 대의원 총 1,290명 중 736명(대회 정족수 646명) 참석

- 민주노총은 2019년 주요 사업으로 200만 조직화,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정치세력화 등 설정
-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을 슬로건으로 '대(對)정부 교섭과 투쟁 병행'을 설정한 가운데 노동·경제·사회 분야에 걸친 대(對)정부 정책 개입력 제고 방침

#### [ 참고 2 ] 민주노총 2019년 주요 투쟁 의제

구 분	주요 내용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3권 완전 쟁취	▲ ILO핵심협약 비준 ▲ 복수노조창구단일화·타임오프제도 폐지 ▲ 노동시간유연화 반대, 노동시간 상한 단축 ▲ 산별교섭 기반 구축 및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정부정책 대전환	▲ 원하청 불공정 횡포 근절 ▲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 보호조치 확대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정규직 철폐, 차별 해소</li> <li>▲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li> <li>▲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li> <li>▲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li> <li>▲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반대</li> </ul>
사회공공성·사회 안전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격의료 제도화, 영리병원 도입 반대</li> <li>▲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강화</li> <li>▲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li> </ul>
한반도 평화·자주통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미상호방위조약·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국가보안법 폐기</li> <li>▲연동형비폐대표제 제도화, 사법 개혁</li> </ul>

-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백만명을 돌파했다고 주장했으며,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교섭권·파업권 개악 요구를 입법 논의할 경우 총파업을 전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발표
- 한편 금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현장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보다는 투쟁의 힘을모아 노동개약을 막아내자는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주장